

오바마 취임 D-50

한반도 정책 이끌 외교안보팀 윤곽

이념보다 실용, 중도 온건파 다수

거물급 다수 포진 역할 분담 관심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외교안보팀은 경륜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조정을 갖춘 형태로 짜여지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뒤인 1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임스 존스 전 나토군사령관이 내정됐다. 국무장관에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국방장관에는 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유임이 확실시된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테니스 블레이드 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내정된 상태이다.

오바마 외교안보팀은 전반적으로 이념보다는 실용, 진보보다는 중도 온건파가 다수를 이루는 형태로 짜여지고 있는 셈이다.

진직 클린턴 행정부 관리로서 국가안보회의(NSC)의 역사에 관한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인손으로 권력을 쥐고,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전형적인 바이올린 모델”이라면서 “오바마는 정치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도적 견지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외교안보팀에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들 간 관계 및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당장 뉴욕 타임스(NYT)가 지난 달 29일 4성장관 출신인 제임스 존스 전 나토군 사령관의 NSC 보좌관 기용에 대해 국방부내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게이츠

장관과 NSC 보좌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독대권을 요청한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 등 거물급 인사들간의 거중조정을 위한 카드라고 분석한 것은 단적인 예.

한반도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NSC와 국무 및 국방부의 고위관료 인선도 마름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이중 오바마 당선자 진영의 핵심 인사로는 아시아지역 전체 책임자인 제프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한국담당인 프랭크 자누지를 꼽을 수 있다. 베이더 선임 연구원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NSC 아시아담당 국장, 나미비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한반도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 맨 스피드재단 사무총장도 NSC에서 아시아 담당 데스크로 활약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연구원, 조너선 폴락 해군대

학 교수 등 다른 보스턴팀 전문가도 국무부의 동아태 라인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 정책조정관도 최근 국무부 공동인수팀장에 임명됨으로써 국무부 고위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對)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악의 축’ 국가의 지도자들과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북한은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 대남압박을 가속화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소위 ‘뽀미뽀미’ 전략을 구사하고 나서 앞으로 오바마와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타이항공이 우타파오(U-TAPHAO) 군용비행장을 이용해 인천행 운항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우타파오 공항 대합실에 한국인을 비롯해 각국의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바닷물 산성화 10배 빨리 진행 美시카고대 연구팀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바닷물이 예상보다 최소한 10배나 빠르게 산성화하고 있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시카고대학 과학자들은 지난 8년동안 미국 북서부 태평양 해안에서 30분 간격으로 바닷물 표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존 기후변화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10~20배나 빠르게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립과학원회보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거대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안에 인접한 타투시 섬 부근에서 반시간마다 한차례씩 바닷물 표본을 채취해 산성도와 염도 및 온도를 조사했다.

연구를 이끈 터미시 우튼 교수는 바다의 생물들도 광합성과 호흡 등을 통해 바닷물의 산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힐러리 국무장관 지명 1일 새 안보팀 인선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지난달 29일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오바마 당선인이 1일 시카고에서 새 안보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힐러리를 차기 국무장관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내의 지명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인 ‘힐러리 J. 클린턴 재단’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

부자 상당수가 익명을 전제로 돈을 내놓았다며 명단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런 익명성 때문에 클린턴 재단이 차기 국무장관에 대한 로비 참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1997년 이래 이 재단이 기부한 20만8천명의 이름을 오

바마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년간 5억달러(약 7천3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은 클린턴 재단의 기부자 가운데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가와 모로코 국왕, 아랍에미리트(UAE) 계열 재단, 쿠웨이트와 카타르 정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정리를 거쳐 12월말께 전체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향후 기부자들의 이름도 계속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뽀미 테러범 5,000명 살해 목표”

테러 진압 마무리... 195명 사망 295명 부상

‘인도관 9·11’로 불리는 뽀미 테러를 일으킨 테러범들이 당초 5천명을 살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R. 파틸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 내무장관은 이날 “초동 수사결과 테러범들은 상당량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무기의 규모

를 감안할 때 당초 이들은 5천명 가량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틸 장관은 “이번 테러에는 총 10명의 테러범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죽고 1명이 생포됐다”며 “이들은 60시간의 범행 기간에 위성 전화를 통해 해외에서 끊임없이 지령을 하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지령을 받은 국가가 어떤지를

물자 “모두 알고 있는 곳”이라며 파키스탄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한편 인도 보안당국은 지난달 29일 타지호텔에서 저항하던 테러범 잔당을 사살,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인도관 9·11’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타지호텔 테러진압을 지원한 국가안보대(NSG)의 J.K. 더트 사령관은 “호텔에서 37명의(테러범) 시신을 수습했다. 이로써 테러진압 작전은 마

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오후 10시(현지시간)에 시작돼 195명의 사망자와 295명의 부상자를 낸 인도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와 인질극은 근 60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뽀미이 재난통제본부가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공식 사망자 수는 195명이며 부상자는 295명이다. 그러나 호텔 객실 등에 수습되지 않은 사체를 포함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 이외에 테러로 관광, 투자 등이 위축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태국 시위대 “공항 이어 항구 점거”

친정부 단체도 집회 예정... 충돌 우려

태국 반정부단체가 현 정부 퇴진을 위해 공항에 이어 항구도 점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친정부단체도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두 단체의 충돌이 우려된다. 반정부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의 동부지역 지도자인 슈티 애차이는 지난달 29일 밤 PAD가 점거 중인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농성장에 연사로 나서 공항 점거에서 불구하고 솜차이 웅사왓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동부지역의 항구들까지 모두 점거하겠다고 위협했다. 동부 해안의 항구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수출단지과 연계돼 있어 시위대에 점거될 경우 수출입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게 된다. 앞서 PAD 시위대는 한때 수완나품 인근 도로를 봉쇄, 식음료 공급을 차단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PAD 측은 경찰이 탄 차량에 권총을 발사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친정부 단체인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은 지난달 30일 오후 방콕 시내 라콘푸영에서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신 치나왓 전 총리와 현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UDD는 경찰이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 중인 PAD를 강제 해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종교 분쟁 이틀 동안 수백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부정부패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발생한 종족·종교 분쟁의 사망자가 최소 3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현지 목격자들이 전했다. 현지 라디오 방송의 한 기자는 AFP 통신에 “도심의 이슬람 사원으로 옮겨진 시신은 모두 378구였으며 사원을 떠날 무렵 3구의 시신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기독교 성직자인 야쿠부 파은 “이틀 동안 벌어진 유혈충돌로 수백명이 숨졌다. 도시 곳곳에 불에 탄 시신들이 들어왔다”고 참상을 전했다. 현지 라디오 방송인 플래투는 주(州) 정부가 사태 발생 이후 4개 구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며, 경찰에 이를 어기는 자는 무조건 발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 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공동	48/233	8억9500만	5억9500만
▶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오동	41,4/58.8	1억4900만	8400만
▶아파트			
소재지	평형	층	면적
내일동	해당	2층	32
▶토지			
소재지	필도	면적	감평가
관산동	당	907	8600만
▶상업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관산동	당	1210	4000만
▶공공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관산동	당	1444/690	10억3500만
▶오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관산동	당	111	8000만
▶오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관산동	당	111	8000만

태양열 시스템으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해당 뜨면 무한으로 태양열 시스템으로 지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태양열 연료비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온수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일일주택, 공장, 호텔, 목욕탕, 유치원, 교회, 복지시설 등...
- 미용실, 식당, 골프장, 헬스클럽 등...

기름보일러 및 심야보일러 사용요금 많이 나오는 업소 및 용량이 부족한 곳에 더욱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순간 온수기 가격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보십시오.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긴 수명으로...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큰 용량의 태양열 온수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난방 및 온수시공 전문업체 ※ 사용량이 많은 곳은 태양열 설치 시 절감된 연료비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36개월 할부)

DaejinSolar (주)대진솔라
제품문의 및 주문 1600-7480